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CLMV 정책협의회 및 OECD 농업 글로벌포럼 참석
2. 출장목적: KOICA가 완료한 캄보디아 캄퐁참주 베테아이 지역 3개마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결과 평가
3. 출장지역: 라오스 비엔트안, 프랑스 빠리
4. 출장기간: 2009. 6. 25 ~ 7. 3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배종하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6.25	서울 → 라오스	
6.26~27	CMLV 정책협의회 참석	
6.28	라오스 → 빠리	
6.29~30	OECD 농업에 관한 글로벌포럼 참석	
7.1	출장 결과 정리 및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참석	
7.2~3	빠리 → 서울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라오스)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라오스 농업부	장관	Bounthong Bouahom	+856 21 412 345
Rural Development Center, Vietnam	과장	Ngoc Anh Nguyen	ngocanhnguyengm@gmail.com
Yezin 농업대학교, 미얀마	교수	Dolly Kyaw	+95 67 416512 dollykyaw@gmail.com

(프랑스)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OECD	부과장	Catherine Moreddu	+33 1 45 24 95 57 catherine.moreddu@oecd.org
OECD 한국대표부	1등서기관	한동민	+33 1 4405 2055

II. 주요 출장 결과

(라오스)

- 제7차 동남아 CMLV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Seventh Roundtable on Building Capacities for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of Transition Countries in Southeast Asia)에 참석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
- 금융위기의 원인,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인 식량안보의 확보 등에 대해 각각 발표가 있었고 토론이 진행되었음.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각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였음.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그 결과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국제 쌀가격의 상승으로 쌀수출이 늘고 더불어 국내생산도 많이 증가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음.

(OECD)

- 회의의 주제는 중장기 농업전망 및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이었으며 OECD, FAO 관계자, 세계은행,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세계무역연구소(WTI) 등 연구기관, 신젠타 등 민간업체, 농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석하였음.
- 6.29.에는 농업에 대한 중기 및 장기전망이 논의되었는 바, 전반적으로 가격은 지난 10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후변화, 바이오연료, 수자원, 원유가격 등이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적인 곡물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international clearing house)를 설치하고 개도국에게는 저리자금을 제공하여 위험부담능력과 구매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오후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수자원, 에너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과 농업의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혁신,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6.30.에는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을 겪으면서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등이 취한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향후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수요에 대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007/08의 농산물가격 폭등으로 식량확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최근에는 불안한 가격이 각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 농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환경과 기후변화가 초래할 농업 생산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늘어나는 식량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주요 연구기관, FAO, OECD 등의 전문가가 전망한 바에 의하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증가, 소비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식량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 경지면적 확보, 개도국 농업의 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 등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conditional optimism)이 지배적

- 최근 농산물가격 상승에 대처한 각국의 경험을 볼 때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거나 비료, 농약 등 투입재 보조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 하는 등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정책(WTO 농업협정에 어긋나는 정책)을 취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식량가격의 폭등이 초래할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다만 이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음.
- 앞으로 농업생산 증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 많다고 판단되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향후 바이오연료의 활용추세, GM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